

언어 영역

정답

1	5	2	3	3	1	4	5	5	1
6	2	7	2	8	2	9	3	10	5
11	4	12	1	13	3	14	5	15	2
16	4	17	1	18	2	19	5	20	3
21	3	22	4	23	3	24	3	25	5
26	3	27	5	28	2	29	1	30	1
31	5	32	2	33	2	34	1	35	5
36	4	37	3	38	5	39	4	40	2
41	4	42	4	43	2	44	4	45	1
46	3	47	4	48	3	49	4	50	2

듣기대본 및 해설

<1번> 이제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손자 :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 오냐, 그래. 잘 지냈니?
손자 :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 옛날 얘기 하나만 해 주세요.
할아버지 : 옛날 얘기가 어디 보자. 그래, 그럼 오늘은 <무명자집>에 실려 있는 얘기를 들려주마. 잘 들어보렴.
 옛날에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던단다. 그 사람은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었지. 그 중 한 마리는 낮에는 잠을 자고, 밤이면 돌아다니며 쥐를 잡았지만, 주인은 그걸 모르고, 제구실도 못하는 고양이라고 여겼단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는 밤에는 사람 곁에서 잠을 자고, 낮에 어쩌다 쥐를 잡으면 반드시 주인 앞으로 몰고 와서 쥐를 어른서 구경거리로 만들었지. 그래서 주인은 이것을 기특하게 여겨서 이 고양이가 반찬을 훔쳐 먹거나 닭을 물어뜯어도 벌을 주지 않았단다. 그리고 낮에 잠을 자던 고양이는 쓸모없다며 쫓아내고 말았지. 사실 쥐가 사라지고, 집안이 평안해 질 수 있었던 것은 밤에 열심히 쥐를 잡은 고양이 덕분이었는데, 주인은 그것을 다른 고양이의 공으로 여겼고, 오히려 쥐 잘 잡는 고양이를 매질하여 내쫓았던 거지. 그러자 쥐들은 “그것 정말 잘 되었다.”라고 하면서 모두 다시 물려 왔단다. 그 후로 쥐 떼는 집 안에서 더욱 극성을 부렸고, 결국 주인까지도 집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구나.

1. [출제의도] 이야기의 교훈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들려준 이야기의 내용을 보면, 쥐 잘 잡는 고양이는 주인이 보지 않는 밤에 쥐를 잡은 반면 다른 고양이는 주인이 보는 낮에만 쥐를 잡고 있다. 주

인은 자신이 낮에 본 것만을 가지고 이 고양이가 쓸모 있는 고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그와 반대인 것이다. 결국 주인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고양이를 평가했고, 그 때문에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번> 이번에는 누나와 남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누나 : 철수야, 신문에서 환경위기사계에 대한 기사 읽어 봤니?
남동생 : 아니. 환경위기사계라니?
누나 : 환경위기사계란 지구 환경에 대해 환경 전문가들이 느끼는 위기감을 시각으로 표시한 거야. 즉, 지구 환경이 얼마나 나빠졌는가를 상징적으로 표시한 것이지. 1992년부터 환경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재단이 그 일을 담당하고 있지.
남동생 : 그래? 그런데 어떻게 환경을 시각으로 표시하지?
누나 : 응, 어렵지 않아. 환경위기사계는 0시부터 12시까지 표시할 수 있는데, 이 시각은 앞으로 갈 수 있고, 뒤로 갈 수도 있어. 12시에 가까워질수록 환경에 대한 위기감은 점점 커지는 거고 거꾸로 갈수록 위기감은 줄어드는 거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조금씩 12시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란단다.
남동생 : 그렇구나. 그럼 환경위기사계로 지금 몇 시각?
누나 : 자. 이 그림을 잘 봐. 1992년의 세계 환경위기사계는 7시 49분이었어. 그러다가 2005년에는 9시 5분이 됐지. 이전 전 세계적으로 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1992년보다 더 커진 것을 나타낸 거야.
남동생 : 아, 그럼, 2006년에는 9시 17분이 되었으니까 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2005년보다 또 다시 커진 거네.
누나 : 그렇지, 잘 이해했구나. 철수야, 그럼 'A' 국가의 환경위기사계를 맞춰 보렴. 이 나라는 1992년에는 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세계 평균치보다 적었어. 그러던 것이 2005년에 와서는 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세계 평균치보다도 더 커지고 말았단다. 2005년의 세계 환경위기사계가 9시 5분이었으니까 이 나라의 환경위기사계를 짐작해 볼 수 있겠지? 그 후 이 국가는 환경 개선을 위해 많이 노력하였고, 2006년에 이르러서는 환경에 대한 위기감이 다시 세계 평균치보다 적어질 수 있었단다. 철수야, 그럼 세계의 환경위기사계와 비교해서 'A' 국가의 2005년, 2006년의 환경위기사계를 짐작해 볼 수 있겠니?

2. [출제의도] 설명을 듣고 내용을 적용하는 문제이다.

환경위기사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상황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1992년, 2005년, 2006년의 세계 환경위기사계를 기준으로 'A' 국가의 환경위기사계를 짐작할 수 있다. 'A' 국가는 2005년의 환경위기사계가 세계 평균보다 컸다고 했으므로 9:05를 넘는 시각이 ㉠에 해당하고, 2006년에는 세계 평균보다 적어졌다고 했으므로 9:17을 넘지 않는 시각이 ㉡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3번> 이번에는 강의의 일부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팽이치기는 얼음판이나 땅 위에서 팽이를 돌리며 노는, 어린이들의 겨울철 민속놀이입니다. 팽이는 팽팽 돈다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팽이는 지방마다 이름이 다른데 그 중에서 팽이라는 이름이 전국적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팽이의 종류는 만드는 재료와 형태에 따라 다양한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말팽이, 장구팽이, 줄팽이 등이 있습니다. 말팽이는 거꾸로 세워 놓은 모양이 쌀의 양을 재는 도구인 말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여 붙인 이름인데, 윗부분을 원기둥 모양으로, 아랫부분은 원추형으로 뾰족하게 깎은 것입니다. 장구팽이는 일명 활팽이라고도 하는데 팽이의 허리 부분은 원기둥이고 위 아래 부분을 모두 원추형으로 뾰족하게 깎은 팽이입니다. 이 팽이는 좌우를 다 칠 수 있는 장구처럼 아래 위의 구별 없이 돌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장구팽이라고 불렀습니다. 줄팽이는 말팽이와 형태가 비슷하지만 팽이의 허리가 길고 허리에 오목하게 줄을 낸 것이 다릅니다. 팽이의 허리 부분에 줄을 냈다고 해서 줄팽이라고 부릅니다. 이외에도 팽이를 정육각뿔 모양으로 만들어서 각각의 면에 1에서 6까지의 숫자를 써 넣은 숫자팽이도 있습니다.
 이런 팽이들은 균형을 잘 잡고 보기 좋게 깎아야 오래 돌아가고 또, 보는 맛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잘 돌면서도 멋진 모양을 가진 팽이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3. [출제의도] 강의 내용을 듣고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찾아내는 문제이다.

이 강의에는 말팽이, 장구팽이, 줄팽이, 숫자팽이에 대한 설명은 있으나 ①번의 바가지팽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5번> 이번에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관한 대담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진행자(여자)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을 위한 경제 상식' 시간입니다.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이 제도를 시행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는데요. 오늘은 이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서 국제청 개인납세국장님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대담자(남자) : 네, 안녕하십니까?

진행자(여자) :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금영수증 제도를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대답자(남자) : 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에 도입된 이후, 2006년 말까지 발급액 30조 원, 발급 건수 7억여 건, 가맹점도 전국적으로 137만 곳 이상이 됩니다. 신용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05년 한 해 동안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은 18조 원이었습니다. 신용 카드 사용 금액이 18조 원이 되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린 것에 비교하면 상당히 빨리 정착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지요.

진행자(여자) : 예, 그렇군요. 그런데 아직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지요.

대답자(남자) : 현금영수증 제도는 국가가 자영업자의 세원을 관리하고, 세금 포탈 없는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금 주고받기를 선호해 왔던 것에 비해, 영수증 사용은 생활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다 보니 세금을 제대로 부과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현금영수증 제도를 통해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진행자(여자) : 네. 그러면 청소년들이 현금영수증 제도를 이용할 때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답자(남자) : 식당에서 식사를 하거나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5,000원 이상의 현금을 지불할 때 “현금영수증 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 좀 꺼림칙하다 싶으면 현금영수증 카드를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는 국세청 홈페이지나 가까운 세무서, 또는 학교를 통해서 단체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진행자(여자) :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현금영수증 챙기는 것을 귀찮아하는 학생들을 위해 현금영수증을 쓰면 어떤 점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답자(남자) : 네, 현금영수증은 부모님들이 소득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증거 자료가 되며, 부가적으로 복권 당첨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주고받는 작은 노력이 우리 사회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진행자(여자) : 예. 지금까지 말씀 감사합니다. 지난해 9월 서울에서 개최된 OECD 국제청장 회의에서 미국, 중국 등의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현금영수증 제도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으며, 인도에서도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경제활동의 한 주체인 청소년 여러분, 이제는 당당하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현명하고 적극적인 소비자라 되시기를 바랍니다.

4.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대답자는 현금영수증 제도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즉,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 배경과 이용 방법, 현금영수증 카드의 이점과 발급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여 현금영수증 제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서는 언급한 바가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5. [출제의도]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대답자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도입 연도,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 및 액수 등 구체적 통계 자료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쓰기 ****

6. [출제의도] 연상내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나무가 열매를 맺은 후 잎을 떨어뜨리는 것에서는 섭리에 순응하는 태도나 다음 봄을 위한 휴식기 등의 의미가 있다. 그러나 나무의 이러한 모습을 삶에서 실패한 것으로 연관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7. [출제의도] 글쓰기 계획을 구체화한 것에 대한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교복 물려주기 행사에 참여할 것을 축하하는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이다. 행사의 특성을 고려할 때, 색상과 디자인에 대한 선호도는 글의 주제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8. [출제의도] 개요 수정 사항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즐겁게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 만들기’라는 주제의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의 내용을 수정·보완하는 문제이다. ㉠은 글의 전개상 적절한 내용이므로 수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박물관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수정할 경우, 하위 항목을 포괄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9. [출제의도] 관점을 달리 하여 쓴 댓글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관점을 달리하여 글을 쓰더라도, 두 항목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번덕이 심하다’는 것은 자신의 결정을 쉽게 바꾼다는 뜻이므로 ‘밝고 명랑한 태도’와는 유기적 관련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0. [출제의도] 고쳐쓰기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형용사는 명명형이나 청유형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을 수정한 것은 적절하다. ㉡은 높임법에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없고, ㉢은 ‘떠올려집니다’가 아니라 ‘떠오릅니다’로 고쳐야 한다. ㉣은 문맥을 고려하여 ‘받아서’로 고쳐야 한다.

㉤은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아야한다’로 수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1. [출제의도] 적절한 사례를 찾는 문제이다.

‘못’은 금지나 불가능 따위의 부정을 뜻하는 부사로, 문장 내에서 자리바꿈이 자유롭지 못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2. [출제의도] 단어의 쓰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채’는 ‘일정한 정도에 아직 이르지 못한 모양. 미처. 제대로.’라는 뜻의 부사이고, ‘체’는 어미 ‘-ㄴ’ ‘-은’, ‘-는’ 뒤에 쓰이며 ‘~하는 척’이란 뜻의 명사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현대소설 ****

□ 출전 : 양귀자, ‘원미동 시인’

13.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A]부분은 작품 안에 위치한 서술자인 ‘나’가 등장인물인 ‘몽달 씨’와 ‘김 반장’의 행위를 관찰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4. [출제의도] 인물의 할 행동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보기1>은 상황에 따라 쉽게 변하는 김 반장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김 반장’이 자신에게 해가 될 상황에서는 ‘몽달 씨’를 외면했지만, 상황이 종료된 후에는 ‘몽달 씨’를 도와주는 척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5. [출제의도] 행위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김 반장’이 사내 주변에 맥주 박스를 치운 이유는 맥주병이 깨져 자신이 금전적으로 손해볼 것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6. [출제의도] 작품의 장르를 바꿀 때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김 반장’은 ‘몽달 씨’에게 바쁘지 않을 때에 시를 읽어 보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몽달 씨’의 시를 읽은 적은 없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인문·사회 ****

□ 출전 : 김계기, <최고의 파세 원칙이란>

17. [출제의도]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공평의 원칙과 효율의 원칙에 의거해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해야 함을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글의 둘째 문단에 의하면, 국민들은 국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기를 원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려는 사람은 드물다고 하였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9.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문제이다.

‘정부의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한다.’는 <보기>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많이 걷어 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부는 불필요한 과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경비를 예측하고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0. [출제의도] 단어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과 ㉡는 반의어 관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과학 · 기술 ****

□ 출전 : 이필렬 외, <과학, 우리 시대의 교양 >

21.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에 어울리는 표제와 부제를 붙이는 문제이다.

이 글은 대체 에너지 대신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함으로써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또한 표제는 글의 내용을 포괄적으로, 부제는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2.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미래에 소비될 에너지양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3.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화석 연료 사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생 가능 에너지를 통해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이 에너지 문제를 우리나라만의 문제로 제한했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현대시 ****

□ 출전 : (가) 이육사, ‘광야’
(나) 나희덕, ‘뿌리에게’
(다) 김광섭, ‘생의 감각’

24. [출제의도] 작품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에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미래 지향적인 삶의 자세가 드러나 있으며, (나)에는 회생적인 삶의 자세가 나타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5. [출제의도] 관점에 따라 작품을 감상하는 문제이다.

<보기>는 반영론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①, ②번은 내재적 관점, ③번은 효용론적 관점, ④번

은 표현론적 관점, ⑤번은 반영론적 관점으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6. [출제의도] 시구 풀이 문제이다.

㉢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고 난 이후, 다시 일구어져 새로운 뿌리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한 것으로 쓸모없이 버려진 부정적 이미지를 나타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7. [출제의도] 화자의 태도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화자는 대상에 대한 회생적인 사랑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인문 · 사회 ****

□ 출전 : 정기운, <역사를 알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

28. [출제의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역사를 왜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논지를 전개하고 있으며, 역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한 후 각각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9. [출제의도] 주장에 대한 적절한 논거를 찾는 문제이다.

‘상식이나 상상이란 면에서, 어떤 즐거움도 역사와 비교될 수 없다.’는 말은 역사를 배움으로써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30. [출제의도] 바꿔 쓰기에 적절한 단어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문맥상 ‘살피고면서’라는 구절은 자기 반성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성찰(省察)’이라는 단어보다는 사물을 뚜렷히 밝히기 위하여 깊이 생각하여 살핀다는 의미를 지닌 ‘고찰(考察)’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고전소설 ****

□ 출전 : ‘옹고집전’

31. [출제의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주어진 지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진짜 옹가는 억울하게 가짜 옹가로 오해를 받는다. 그러나 자신이 진짜라고 주장하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주장하다가 ‘뿔히 곤장 밑에 죽’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가짜라고 말하고 만다. 이러한 모습으로 볼 때, 진짜 옹가가 외부 압력에 굴하지 않는 강인한 성격을 지녔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2.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A]는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하여 사건을 보여 주고 있으나 <보기>는 서술자가 말하기 방식으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3. [출제의도] 언어유희를 묻는 문제이다.

[B]에 나타나는 ‘옹송’과 ‘만송’은 옹가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이고, ‘옹송망송’은 정신이 흐릿하여 무슨 생각이 나다 말다 한다는 의미를 지닌 ‘옹송망송하다’에서 나온 말이다. 이는 의미는 다르지만 발음이 비슷하다는 점을 활용한 언어 유희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4. [출제의도] 판단의 근거를 이해하는 문제이다.

진짜 옹가가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만을 간단하게 말한 것에 비해, 가짜 옹가는 집안의 내력, 세간살이의 정도 등을 상세하게 진술함으로써 사또에게 신뢰감을 주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문화 ****

□ 출전 : 국제한국학회, <한국문화와 한국인>

35. [출제의도] 읽은 후의 반응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웃을 던져 나온 점수를 가지고 말을 부리는 과정은 같은 편끼리 함의적 방식으로 의견을 모아 웃음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6. [출제의도] 문맥의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해당 단락은 중심 내용을 첫 문장에 제시한 후 구체적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에서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7.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화·발전한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제시문에 나타난 내용을 바탕으로 이를 내용적으로 깊이 있게 전개시켜 학습하는가(심화), 또한 다른 측면에 적용하여 논의를 확장해 나가는가(발전)를 물어보고 있다. ③번은 제시문에 이미 나온 내용이므로 심화·발전된 내용이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38. [출제의도] 제시문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문제이다.

⑤번의 경우 ‘나’ 말로 A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은 3/8이며, ‘가’와 ‘다’ 두 개의 말을 이용해 A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은 5/16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과학 · 기술 ****

□ 출전 : 신동원 위음, <우리 과학의 수수께끼>

39. [출제의도] 사실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에밀레종 소리에서 응용거리의 소리가 나는 이유를, 물리학의 이론인 맥놀이 현상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이 문제는 제시문에 나타나 있는 맥놀이 현상의 사례와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다. 120Hz의 음은 100Hz의 음보다 초당 진동 횟수가 높아 공기와의 마찰로 인해 빨리 소멸하게 된다. 또한 맥놀이 현상은 두 음파 간의 진동수 차가 없을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40. [출제의도]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에밀레종 소리의 맥놀이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을 물리학적 분석 자료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1. [출제의도] 세부적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맥놀이 현상이 일어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을 본문의 내용과 관련지어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절문이다. <보기>의 그림은 타종 직후에는 다양한 주파수의 소리들이 동시에 존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고주파 음들이 먼저 사라지고 몇몇 저주파 음들만 남게 되며, 나중에는 64Hz와 168Hz, 두 음이 남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42. [출제의도] 어휘의 쓰임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지문 내용 중 외래어인 '튜닝'을 우리말로 바꾸기 위하여 사전에서 문맥에 맞는 뜻을 찾아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악기 음을 튜닝하는 것은, 어떤 기준에 틀리거나 어긋남이 없이 조정하는 일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시가·수필 복합 **

□ 출전 : (가) 윤선도, '어부사시'
(나) 이현보, '어부가'
(다) 홍미숙, '신희동'

43. [출제의도] 작품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 (나)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흥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4.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백구'는 자연을 상징하는 소재로, 이는 화자가 욕심 없이 자연 속에서는 살아가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소재이고, '신희동'은 화자가 자신의 삶에 대하여 감사하고 순응하며 살아야겠다는 깨달음을 주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45. [출제의도] 관점에 따라 자료를 해석하는

문제이다.

<보기>에는 농암과 퇴계가 현실 비판 정신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 않으므로 '어부사시사'가 그들의 정신을 계승한 작품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6. [출제의도]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 ㉡, ㉢, ㉣은 모두 자연을 상징하고 있는 데 비해, ㉤은 속세를 상징한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7. [출제의도] 한자성어를 통한 상황 표현을 이해하는 문제이다.

① '전화위복'은 나쁜 일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뜻이고, ② '칭출어람'은 제자나 후배가 스승이나 선배보다 나음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고, ③ '사후약방문'은 죽은 후에 처방을 받는다는 뜻으로 때를 놓쳐 후회하지 말고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뜻이고, ⑤ '일일신우일신'은 하루하루 그 실력이나 솜씨가 나아진다는 뜻이다. [A]는 모든 인생사가 내가 만드는 것으로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일체유심조'가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언어 **

□ 출전 : 정주리 의 위음, <역사가 새겨진 우리말 이야기>

4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사람의 특성과 행위, 돌림자 등을 사용하여 이름을 짓는 다양한 방법이 서술되고 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이름 짓기 방법은 사회 변화의 모습을 담고 있다. 즉 사회가 변하면서 이름의 양식이 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9. [출제의도] 글 속에 제시된 원리를 적용하는 문제이다.

①, ②는 사람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이름 짓기 유형, ③은 고유어를 사용한 이름 짓기 유형, ⑤는 향렬(서열)을 나타내는 이름 짓기 유형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50.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 파악하기

㉠은 '어떤 특별한 뜻을 가지는 상태에 놓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① 일이 잘 이루어지다, ③ 어떤 재료나 성분으로 이루어지다, ④ 수량에 차거나 이르다, ⑤ '않다'와 결합하여 전혀 이치에 닿지 아니한 말이나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의견을 나타내는 관용어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